

사람생각!  
소통의 공간!  
행동하는 자성!

# 할말은 한다 1호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홍세나 전화/920-5159

## 2017년 4/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미래의학을 선도하기 위한 의료원 성장 동력  
노사 상생과 협력!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



### 협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한 2017년 4/4분기 노사협의회가 2018년 1월 25일에 진행됐다.

오후 3시 의과대학 318호에서 열린 노사협의회에는 사측 대표위원인 이기형 의무부총장 및 박종웅 의무기획처장, 김호용 사무국장, 서성구 노사협력팀장이 참가했다. 노측은 홍세나지부장 및 이장구 사무장, 최재원 조직부장, 정혜란 교육부장이 참가했다.

4/4분기 노사협의회는 2016년 중노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인 동시에 의료원 신입집행부를 처음 만나는 자리로 간단한 상견례를 진행한 뒤 논의를 진행했다.

사, 고대의료원 발전을 위해 노사 협력하고 상생하자.  
노, 미래의학 선도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 성숙하고 소통하는 문화 만들자.

안건을 진행하기 전 노사 대표위원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

다.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큰 조직을 맡다보니 책임감도 크고 해야 할 일도 많아 걱정이다. 고대의료원이 지난 2년간 규모, 연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의무부총장으로써 의료원을 탄탄히 만들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고대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노사가 같이 협력하고 상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애기를 많이 듣겠다. 저는 미래와 혁신을 강조하는데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가자” 고 말했다.

곧이어 홍세나지부장은 “의료원이 근년 간 연구 및 진료 등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올해 예산이 1조 2천 억 원을 돌파했다는 얘기 들었다. 직원들의 자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 이번 의료원 집행부가 미래의학을 선도한다는 고대의료원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 주실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길에 조합원들과 교직원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더

붙어 노사관계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오랫동안 경직된 문화가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려워서 조금 더 유연해지고 성숙된 노사 문화 만들어가자” 고 말했다.

노사 대표인사가 끝나고 의료원의 보고사항을 브리핑한 후 ▲연구용역 공동발주에 관한 건 ▲인사평가제도에 관한 건에 대해 약 1시간가량 논의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18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정상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는 고대의료원을 만들자!**

고대의료원이 3개 병원 JCI인증을 받고, 융복합의학센터 착공 및 규모 확장에 이어 2018년 예산이 1조 2천억을 돌파하는 등 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집행부의 정책에 묵묵히 따랐고, 큰 고비마다 많은 희생을

감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이 직원들을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소통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고대의료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와 적극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 의료원의 정책을 힘 있게 견인해 줄 6500구성원의 대표인 노동조합과의 상생협력의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2018년 새로운 노사문화를 통해 노사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고대의료원을 만들고, 의료원의 수준도, 노사관계의 수준도 최정상으로 도약하자!

**<2017년 4/4분기 노사협의회 논의 안건 및 결과>**

의료원 보고사항	
요청 자료	의료원 보고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현황 : 외래 환자수는 5,469명 0.2% 증가했으나 입원환자수는 18,722명 2.1%가 감소했다.</li> <li>■ 수가현황 : 전년대비 외래가 9.9%, 입원이 7.7% 증가했다.</li> </ul>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병원 총 19개 병상이 늘었다.</li> </ul>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55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li> </ul>
4. 의료원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서가 나오지 않아 4월 이후 결산서가 나오면 대체하겠다.</li> </ul>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없음

안건	노동조합	의료원
1. 합의사항 이행 점검에 관한 건		
<b>연구용역 공동발주에 관한 건</b>	2016년 임단협 합의 사항인 노사문화, 조직문화, 인사제도 연구 용역을 위한 노사 공동발주에 대한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	노사 실무가 만나서 연구 용역에 관해서 어떤 부분을 발주 할 것인지 먼저 정리해서 그 안이 절충되면 그 다음에 연구 용역을 계약하든지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실무회의를 통해 안을 좁혀가려고 안을 만들고 있다.
<b>인사평가제도 이행에 관한 건</b>	인사평가 제도가 사측의 상대평가와 노측의 절대평가 방식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율이 시급하다.	상대평가가 되어도 노동조합이 우려하는 부분이 전혀 표출되지 않는다. 올 해 2018년 6월에 진행되는 인사 평가 제도는 종전 시스템으로 반영하고 바뀌는 제도는 2019년 2월 달이 되어야 시작한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노사가 실무회의를 좀 더 진행해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 같다.